

연중 제19주일

제1독서 : 1열왕 19, 4-8

제2독서 : 에페 4, 30-5, 2

복 음 : 요한 6, 4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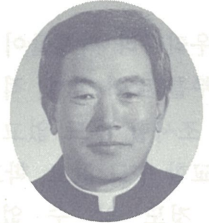
순정이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닮으십시오

(에페 5, 1)

강론

복종의 요구



박종상 신부/삼례 성당

‘못마땅해서 웅성거렸다’(요한 6, 41). 예수께서도 말에 대한 신뢰를 주시기에는 실패하셨다. 자기 생각을 남에게 바르게 전하기 위해 필요하게 말이다. 또한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도 말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이를 이루지 못하셨다? 깊이 생각하면 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의사소통이 잘못되어 웅성거림뿐 아니라 큰 불행에 이르는 것도 본다. 자기 위주의 삶, 인간적 판단의 절대적 우위, 가치의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특히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오늘의 복음은 가르침을 준다.

성서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타난다. 한결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 내지는 구원의 조건을 찾는자들이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으니 듣고, 받아들이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복종하는 것이다. 신앙의 모범으로 꼽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자. ‘네 고향을 떠나라’(창세 12, 1). ‘네 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창세 22, 2)는 말씀을 듣는다.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불확실한 어둠과, 의미도 꿰뚫어보지 못하면서 따라야 할 행동들이다. 그러나 그는 신뢰를 두고 충실히 따랐다. 사도들은 어찌했는가? 비록, ‘누가 체일 높은가’(마르 9, 34)라고 길가다가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야 누가 알 수 있겠는가?’(요한 6, 60)라는 인간적 약점을 보이기도 하나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마르 1, 18)는 말씀에는 복종하여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나선다’(마르 1, 20) 그들이라고 고기잡이, 배, 그

물, 부모형제의 가치를 물렸을까?

‘주께서 눈을 멀게하시고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눈을 가지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이사야 6, 10)는 말씀처럼 불복종의 경우도 있다. 율상을 지으며 예수 곁을 떠난 부자청년(루가 18, 18이하) 보고야 믿겠다는 인간적 조건을 내세운 토마(요한 20, 24이하)가 그렇다.

말재간이 없다고, 즉 혀가 굳고 입이 둔하다는 핑계로 부르심에 따르지 못하겠다는 모세(출애 4, 11), 아이에게 생각이 짧고 말을 잘 못한다던 예레미야 예언자(예레 1, 4이하)도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 조건 조건들을 채워주시면서 강하게 복종을 요구하신다. 모세에게는 말을 잘하는 아론을 동반자로 주셨다. 토마에게는 당신의 상처자국을 직접 보여주시되 보지않고도 믿는 믿음 즉 인간적 조건을 벗어나도록 요구하신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나아가 복종할 것을 오는 복음에서도 은근하면서도 강하게 요구하신다. 자주 주위의 여건이나 인간적 조건을 내세우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있다. ‘나더러 주님, 주님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 21이하). 주님은 열렁뚱땅도 어정쩡함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복종을 요구하신다. 이 단어의 신앙생활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고, 세상에 만연한 불신을 씻는 말의 위력을 증거해야겠다.



얼마나 더 공부해야

김 인 봉(대건 안드레아)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하여 공부를 많이 할까, 적게 할까.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조사할 수도 없고,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전부 비교할 수도 없고, 학교 밖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알 수 없으니 우리나라와 오이시디(OECD) 가입국의 고등학교 수업량만 견줘보자. 여기서 말하는 오이시디 가입국은 94년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올해 가입한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연간 법정수업시수는 1,156시간이다. 반면에 오이시디 가입국 일반계 고등학교의 연평균 수업시수는 688시간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일년에 468시간 많이 한다.

여기에 보충수업까지 합하면 훨씬 많아진다. 보충수업은 하루 2시간씩 한 달에 40시간 한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뺀 아홉 달 동안에 360시간 정도 한다. 방학때는 학교마다 학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100시간으로 보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합하면 200시간이다. 360시간에 200시간을 합한 560시간이 일년 보충수업량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일년 수업량은 법정수업 1,156시간에 보충수업 560시간을 합한 1,716시간이다. 오이시디 가입국 688시간의 3배에 가까운 수업량이다. 이것도 부족하여 학교에서 파하기가 무섭게 학원과 과외교사한테 달려가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공부하는 기계다.

그러나 지금은 양에서 질로 넘어가는 정보화시대 아닌가. 일반상품은 양을 중시하는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질을 놓고 따지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진작 넘어갔는데 교육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양에 머물러 있다.

견문이 적은 탓인지 오이시디 국가들이 수업 많

이 해서 선진국 되었다는 소리도 아직 못들었고, 수업량이 적어 후진국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하기사 이렇다할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5000년 묵은 절대빈곤을 털어버리고 올해 오이시디에 가입한 것은 이렇게 엄청난 수업량 때문인지도 모른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한참크는 학생들을 25평 짜리 교실에 40~50명씩 몰아 넣고 선풍기 네 대 달아주고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할까. 체온에 육박하는 무더위에 하루 대여섯 시간씩 땀 흘리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지겨울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다수 학생들은 잠자거나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얼마나 더 공부해야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질까. 우리도 이제 오이시디에 가입하였으니까 수업량을 줄여도 되지 않을까. 경제 성장에 걸맞는 인간다운 사회의 삶을 위하여.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수류 청소년 야영장에서 열린 청소년 신앙대회 봉헌금 656,060원은 북한 어린이 돕기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숲정이 산책



주님이 계시기에



하느님 사랑의 손이 되어



사회에서 소외된 재소자, 출소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유양자(울리아나, 동산동 본당)씨를 찾아가 삶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팔복동에서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재소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언제부터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 저는 원래 개신교 신자였는데 1985년 가을 세례를 받기 위해 복자성당의 예비신자 교리를 수강하고 있었어요. 그때 본당신부님(김기수 신부)께서 교도소를 방문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교통사고를 내고 복역중인 저희 회사 운전기사를 면회하러 갔었지요. 교도소에 가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람을 죽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한 분을 만났는데 자신의 삶을 참회하는 그분의 고백이 저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이나 그날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몽클한 채 지내다가 재소자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자 재소자들에게 매일미사를 매달 이백권씩 보내주었지요. 몇 달을 지내고 나니 그동안 매일미사를 잘 받아 보았는지, 미사는 잘 봉헌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교도소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아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신부님의 허락을 받아 전주와 군산 교도소의 재소자를 돕는 '디스마'라는 후원회를 결성했어요. '디스마'회가 발족한지 10년쯤 지나 교

구에 '사회교정사목'분야가 생겨났고 이채후 신부님께서 지도를 맡으셨지요. 그때부터 '디스마회'는 없어지고 교구의 교도사목 후원회 일을 계속 도왔어요. 그러다보니 형을 마치고 교도소를 나갔던 형제들이 출소 후에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어서 재범을 하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화가 나고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딱한 사정이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그후부터는 오갈 데 없는 출소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은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출소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왔다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계속 들락날락해도 그들에게 한 구석이라도 마음 편한 자리가 있다는 위안을 주고 싶어서지요. 지금 출소자 5명, 장애인 3명이 생활하고 있는 사랑의 집은 그리 좋은 시설도 아니고 그냥 저의 집 일부를 개조해서 함께 살아가는 정도예요. 솔직히 재소자, 출소자들을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보람도 적구요. 오히려 힘들 때가 더 많지요. 며칠 조용하다 싶으면 나가서 사고를 내서 한밤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교통사고나 폭행사고를 저질러 합의해야 하니까 돈을 달라는 일들이 빈번해요. 가끔은 내가 밀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어요. 그래도 가끔은 직장을 얻고 결혼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희망이 생기고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요. 제가 바라는 것은 없어요. 그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겠다는 마음 뿐이에요. 제가 작년에 위암 수술을 해서 위를 5분의 4 정도 잘라냈어요. 그래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식사도 주의해야 하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재소자, 출소자들을 돕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손을 빌려드리는 것 뿐이니까요.

특집

우리도 마리아가

최근 10년동안 신자여성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였다. 이제껏 마르타의 역할에 만족하며, 이것이 팔자려니 하며 살아오신 여성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10년전에 신자여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리는 신사임당과 한석봉 어머니의 후예이고, 굳이 중국에까지 가자면 맹모삼천지교를 따르는 현모양처가 이상인 나라에 사는 여성이다. 싫으나 좋으나 여자는 모름지기 가정에선 삼중지도를 따르고, 성당에선 신부를 따라야 하는 법이다. 남편에게 흠뻘 두들겨 맞는 신자여성들이 60% 가까이 되는 이 지경에도 남편에게 충성, 아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여자의 도리이다. 맞아 죽는다 한들 가출이나 이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교회안에서도 자리란 자리는 남자들이 다 차지하고 하는 일이라곤 그저 고된 잔심부름 뿐이어도 불평은 금물이다. 그저 여성에겐 순종이 일이며 운명이다. 이것이 하늘이 정한 이치인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여자는 여자일 따름이다. 일부 배운 여자들 중에 잘난 척 하는 것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봐야 별 수 없다.”

그런데 요즈음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신사임당의 남편은 그때 어딜 갔었나? 한석봉의 애비는 무엇하는 인간이며 맹자의 애비는 또 무엇인가? 애비가 교육을 해야 자녀들이 바르게 키는 법. 매일 직장일 핑계대며 술이나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와서 행패나 부리니 애들 농사가 안될 수 밖에. 학원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애들이 가출을 하고 본드나 먹는 일이 다 누구 탓이나 말이야. 엄마 탓이라고? 요즘 어느 심리학자, 교육학자가 이런 무지한 말을 하나 들어보라고, 그저 애비가 중심이 잡혀야 아이도 중심이 잡히는 법이야. 여자 애들이 가출하면 술집에서 일한다는데 아버지뻘 나이되는 남자들이 영계라며 더 찾고 난리라는데, 뭐, 엄마 탓이라고? 사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자기 인생만 인생인가? 내 인생은 뭐난 말이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통계에는 열명중 네명이 남자라지만 성당에 가보면 10명중 1~2명에 될까말까하는 게 현실인데도 힘쓰는 자리는 지들이 다 앓아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허드렛일에, 큰 일있으면 돈이나 갖다 바치는 게 고작이지. 행사라도 있을라치면 한복 입고 들러리 서라고 하고, 성당에 잘 나오는데 강론때 야단 맞는 건 노상 우리고 말이야. 사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우리들이 아니었으면 천주교회가 어떻게 클 수 있었느냔 말이야. 이젠 더 이상 못해! 나도 예수님 곁에서 가사일 좀 접어두고 귀한 말씀 듣고 싶다 이거야. 헌금, 교무금 다 어디다 쓰느냔 말이야. 우리도 이제 인간답게 마리아



무방부, 무색소, 무공해, 건강발효식품
울의, 오이, 무우 장아찌(나나스케)

토 립 식 품

대표 : 정 작(빅토리아노)
강 우 창(마 리 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58-1
☎ 211-5277
호출 015-6603-2202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C-T촬영 · 일반X-선 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 촬영
유방촬영 · 성인병검진 · 자동차적성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순창성당 김치

천연 양념만으로 맛을 냅니다.
포기김치, 알타리, 열무, 백김치,
뽕산갓김치, 깍두기
제래식품 - 된장, 간장, 고추장
전화로 주문 배달
군산 (0654) 452-4939
익산 (0653) 52-5300

이사짐 및 용달

사다리차 · 인부대기
1톤 · 4.5톤 · 5톤트럭

251-2024
☎ 246-2024
223-2024

이 한 주(토마)

발레요 !!

박문수/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

아의 귀쫂 가져 보자구.”

설마 그럴 리가! 대부분의 남성신자들이 의문을 가지실 듯하다. 그러나 이제 이런 여성들의 항변이 현실이라는 점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그동안 내가 참여한 의식조사며 여성신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면접에서 이런 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성도 서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신자, 수녀) 늘어나고 있다. 사목위원도 비례 대표제로 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신부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점점 불만을 사고 있다. 대놓고 이야기 하지 않을 뿐이지 뒤에서 이야기하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더이상 여자들이 성당에서 봉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튼 남성들이 볼 때 여간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을 터이다. “우리는 뭐 고생안하나. 자기들이 갖다내는 돈은 누가 버는 것이며, 애들 교육은 하기 싫어서 안하나 말이야. 우리도 다 할말이 있다 이거야.”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남성들은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싫든 좋든 미래에는 여성들이 힘을 갖게 된다. 늘 기득권을 누리다보니 당하는 여성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바꾸어 생각해보면 남성들도 사회생활 하면서 남에게 놀리기 싫어하지 않는가? 그러면 여성이 남성에게 당한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이상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시대는 바야흐로 모든 권력과 권위가 새로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 세상이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남성들도 줄을 잘서야 한다. 돈으로 미래를 보장하는 보험이 세상에서 유행인 모양인데 가정과 교회에선 보험이 따로없다. 가정에선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고, 성당에선 여성 신자들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보험이다. 여성들도 변화하는 현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성들이 스스로 양보하는 법은 없으니 말이다.

요십이 (1252) 김병오

청소년들이 밝고 학하게 생활하도록 유도해 보세요

어떻게?

한국

선형 청소년을 TV나 신문에 많이 선전하여 인기인으로 만들어주고...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무시험 진학특혜를 주고...

합격증

장학금

살신성인한 청소년의 가족에게는 연금을 주어보시오

연금

회원모집 가톨릭 공인중개사회

문의처: 전주지역
대도, 세신, 상륙,
코오롱, 영도, 중원

대진공인중개사

☎ (0652) 221-7628~9

015팔달통신·017

전북이동통신 팔달 대리점
신세기통신 팔달 대리점

오 현 종(스테파노)
유 미 숙(마르타)

전주 오거리 국민은행 옆

☎ 85-0015~6

이철수 사슴목장

농축, 녹혈, 녹중탕
사슴분양·사육상담

전주박물관 700m 전방
정진주유소 좌측

이철수(토마)·문봉례(안나)

☎ 224-3070

김회민 정형외과

뼈, 관절, 척추, 신경
최신물리치료기 도입, 입원실

김 회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케,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지도 담당

동서관통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폰소), 황진숙(안젤라)

☎ 88-7717~8

연지곤지 웨딩이벤트

드레스 40만원

(턱시도·신부화장 부케, 펌팩트 무료)

웨딩모토·비디오 촬영 원판

유 순 이(가타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앞

☎ (주) 82-2347 (야) 225-5755

사목 단상

부끄러웠던 그 날



채정희 수녀 / 송학동 성당

15년전, 지금도 그때를 되돌아 보면 한 영혼에 대한 부끄러움이 내맘 한구석에 남아 있다.

한국의 나포리라고 부르는 남쪽의 아름다운 고장에 자리잡은 성당에 있었을 때의 일이다. 작은 언덕을 올라 성당마당에 들어서면 성모상이 맞아주는 아담한 곳이었다.

찬바람이 몸을 스치던 어느해 겨울, 나는 내일로 다가온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마당에 텅구는 낙엽을 쓸고 있었다. 갑자기 아주머니의 숨가쁜 음성이 나를 불렀다.

“수녀님, 우리 아랫방 할머니가 돌아가시려나봐요.” 경상도 사투리의 호들갑스런 말투에 다급함을 느낀 나는 낙엽을 쓸던 비를 내던지고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그분은 참기름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형편에도 하느님께 대한 정성으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아낌없이 바치는 열심한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좁은 방은 옷가지들과 가재도구들이 널려있어 발디딜 자리를 찾기 힘들정도였다. 게다가 의식을 잃은 할머니의 하반신은 온통 오물로 더럽혀져 있었다. 당황중에도 이런 곳은 일은 신자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수녀인 내가 직접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 가까운 구멍가게에서 고무장갑을 사다가 끼고 오물처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무엇은 손을 가린다’라는 옛말처럼 손이 맘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다. 선뜻 달려들어 바지런하고 꼼꼼하게 씻어 드리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나는 자꾸만 주춤거렸다. 겨우 최소한의 눈가림만을 하고 더럽혀진 옷가지들을 뭉쳐 한구석에 밀어 놓은채 성당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감실앞에 앉은 나는 평소에 정분을 나누던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정작 필요할 때 잘 해 드리지 못한 초라한 내모습을 발견하고 너무나 부끄러워 얼마나 울었는지……

그당시 나는 수녀가 된지 얼마되지 않아 사도직의 경험도 부족했었지만 신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평소의 내모습이 드러난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아팠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성모님의 모성을 닮노라고 하면서 실지로는 그렇지 못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행동을 했는지 하는 후회와 함께.

사그러져가는 영혼을 정성을 다해 보살피지 못한 나의 아픔은 그래도 성모님께서 언제나 할머니와 함께 해주셨으리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위로 받을 수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은 임종자들과 병든이들을 찾아가 성모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나의 보람이 되었다.

이제 부끄러웠던 그 옛날의 추억은 성모님의 모성을 닮아보려는 간절한 바람과 함께 큰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 윤 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기초반·메이크업반·연구반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0653) 841-2495, 855-8653

침 대궐 전 시 장
◎ 목 재 침 대
• 싱글 : 110,000원
• 더블 : 160,000원
• 쿤 : 300,000원
이 레 가 구 산 업
김 미 숙(안젤라)
완산구 삼천동(풍남중 건너편)
☎ 225-2368, 5328

씨에 프랑스(주)
유럽 및 세계 전문 여행사
유럽 배낭여행
〈여행 상담을 환영합니다〉
조 중 자(베로니카)
덕진광장 앞 서울의원 2층
☎ 72-3335 FAX 72-3065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 75-0550

교구소식

❖60레지아 1단계 기사교육
· 때 : 8월 11일(월)~13일(수)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사회복지 월례미사
· 때 : 8월 1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군산사회교정사목후원회미사
· 때 : 8월 11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나운동 성당

❖사제 아버지 모임
· 때 : 8월 16일(토) 오전 11시
· 장소 : 전동 성당

❖김봉희 신부 주소 변경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산 11-1
전화 · FAX겸용 85-5755(성당)
전화 · FAX겸용 87-5400(사제관)
휴대폰 011-658-5401

❖남성 57차 꾸르실로
· 때 : 8월 14일(목)~17일(일)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성직자 묘지 미사
· 때 : 8월 11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치명자산

❖지리산 방문객을 위한 미사
· 때 : 매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인월공소(31-0091)

❖무주구천동 관광 야외미사
· 때 : 매주일 오전 6시 30분
· 장소 : 무주리조트 정문

❖강천산 방문객을 위한 미사
· 때 : 매주일 오후 4시
· 장소 : 강천각 호텔 이층 세미나실

❖장안산 공원(방화동 계곡)미사
· 때 : 매주일 12시 30분
· 장소 : 덕산분교 교정

❖화산동 성전 신축 기공식
· 때 : 8월 17일(일) 오전 10시

❖기억할 사제
8월 11일 구마술(말첼리노)신부
68주기

성소모임

❖동정 성모회
· 때 :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 장소 : 금암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2) 253-0325

❖부산 성 베네딕도 수도원
· 때 : 매월 넷째주 오후 2시
· 장소 : 호성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2) 244-0094

❖성바오로딸 수도회
· 때 : 매월 첫째주 오후 2시
· 장소 : 바오로딸 서원
· 문의 : (0652) 252-3398

권해 드립니다.

영혼의 샘터
김요한 지음/5,200원/
바오로 딸

삶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도록 영혼을 일깨워주
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예화
들. 1부 소중한 삶의 길, 2부
영혼과 사랑의 대화, 3부 내
가 만난 예수 등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알고보고
섬기는 지혜를 찾아준다.

북한 형제돕기 성금 접수

삼 레 성당 1,162,540	호성동 성당 1,000,000	이영자 37,610
해성고 교직원 260,000	(2회)	김영란 5,860
해성고 학생 613,550	김봉옥 222,000	황동창조신협 98,800
신 풍 성당 306,400	인후동 성당 1,594,700	소 계 24,401,590원
나운동 성당 767,940	정대범 22,750	총접수액 47,923,590원
(2회)	익 명 37,610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더운 날씨는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해이하게 만듭니다. 알뜰살림을 위해서, 그리고
자원낭비를 막는 지혜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부지런한 개미의 물자 절약방법을 알아
보기로 하지요.

구 분	절 약 방 법	월 절약금액
물	샤워시간 5분 줄이기 양치질 할 때 컵 사용	500원 330원
전 기	가전기 플러그 뽑기(1일 8시간) 냉장고 온도 2℃ 올리기 선풍기 1단계 낮추기(1일 10시간) 하루 TV시청 3시간 줄이기 한 집 한 등끄기(1일 7시간)	860원 240원 270원 1,100원 650원
휘발유	자동차 10분간 공회전 안하기(월5회) 자동차 10분간 주행 안하기(월5회) 급출발, 급가속 안하기(1일 1회)	850원 2,100원 390원

K-랜드 하계 시즌 오픈

- 숲속의 쉼터 테마파크(넓은 주차공간)
- 회전점등 20여종의 놀이시설 액션파크
- 대형 야외풀장 덕 스프링(길이 50m)
- 민속 카페 그린하우스(식음코너)
- 황토방 방가로 애플기든(외식코너)
- 다양한 패스트푸드 스노우하우스(간식코너)

윤병순(요셉), 김혜경(레지나)
☎ (0658) 44-2862
위치 : 금구 목우촌 앞

초대합니다

효자우전성당 준공기념 바자회

1. 때 : 10월 16일(목)~19일(일)
2. 곳 : 효자우전성당

☎ 사무실 221-3711
FAX 226-1044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1. 모임 안내 : ① 바오로회, 애령회 임원회의 - 교증미사 후
② 자모회 - 13일(수) 전 10시
③ 울트라야 - 17일(주일) 교증미사 후
2. 초·중·고 교회교사 및 청년수련회 : 9일(토)~10일(주일), 상록해수욕장
3. 축! 꾸르실로 교육 : 김미숙(로사), 박금희(안젤라), 박석순(보나)
4. 성모승천 대축일 : 15일(금), 전 5시 30분 및 전 10시 미사
5. 영세식 : 15일(금) 초등부 3학년이상 영세식 및 첫영성체식 있음
6. 부녀회 교육 : 27일(수), 전신자 어머니 교육 실시
7. 실천 사항 : 미사참여, 가정성서 모임, 이웃전교
8. 청년레지오 : 35세 이하 남녀신자 참여바람
9. 특별 헌금 : 본당 발전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10. 금주 전례 : 해설 - 이점열, 독서 - 김승일(그레고리오) 부부
예물봉헌 - 장철관(벤첸시오) 가정
11. 차주 전례 : 해설 - 김 철, 독서 - 박창석(요셉) 부부
봉헌 - 강순구(가브리엘) 가정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아라.
- ◎ 경축! 본당 성전신축 기공식 : 17일(일) 공식미사중
-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성전신축을 위한 정성어린 기도 바랍니다.

1. 금주 모임 : ① 낮미사 후 - 요셉회, 안나회, 반석회, 자모회
2. 교회교사 야유회 : 11일(월)~13일(수)
3. 음악기초교실 : 12일(화) 후 8시
4.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 전 10시 ※ 2차 헌금 있음
5. 차주 모임 : ① 낮미사 후 - 대진회, 성모회
6. 폐품을 잘 정리하여 가져 오시기 바람.
7. 청소년 봉사 : 16일(토) - 동정 마리아Pr.
8. 폐품 정리 : 16일(토) - 로사리오의 모후Pr.
9. 금주 전례 : 새벽 - 유희정, 낮 - 이영숙, 저녁 - 김영중
10. 차주 전례 : 새벽 - 박순옥, 낮 - 최정순, 저녁 - 정인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74-9260 수 녀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준 웅

◎ 냉담교우에게 "숲정이"를 전달합니다!

◎ 오늘은 사제양성후원회비 납부일

1. 금주 모임 : 울트라야 - 후 7시, 지하성당
2. 주간 모임 : 성령기도회 - 12일(화) 후 8시, 유아실
3. 차주 모임 : 꾸리아 - 공식미사 후, 지하성당
4.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시간 : 15일(금) - 주일과 같음
※ 의무축일이며,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5. 수녀님 피정 : 12일(화)~21일(목), 김크리스티나 수녀님, 박투치아 수녀님 ※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바람.
6. 꾸르실로 여성 58차 : 7일(목)~10일(일), 강은영(크리스티나)
7. 꾸르실로 남성 57차 : 14일(목)~17일(일), 황상량(예로니모), 김종관(프란치스코), 장철호(도미니코 사비오) ※ 많은 기도바람.
8. 초·중·고등부 교리 방학 : 2일~23일, 개학 - 30일(토)
※ 방학동안 어린이미사(토) - 후 4시(종전과 같음)
9. 성당부지헌금 신입 감사! : 의명 20만, 오숙희 20만
누계 - 260,515,000원(440세대)
10. 독서 : 금주(새벽) - ① 류인걸 ② 서영미, 차주 - ① 정재윤 ② 정정순
금주(공식) - ① 신의철 ② 박동환, 차주 - ① 박수복 ② 정금순
11. 미사 안내 : 금주 - 찬송하을 모후Pr., 차주 - 하자없으신 모후Pr.

호지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보좌신부 223-3823 수 녀 원 223-3822 보좌신부 권 완 성
F A X 223-3821 사목회장 이 병 선

1.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 15일(금) 전 6시, 전 10시, 후 7시
※ 페루선교 후원 2차헌금 있음
2. 축! 영세식 : 15일(금) 10시미사중
※ 새로 탄생한 40여명의 가족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3. 금주 모임 : ① 안나요셉회 - 10일(일) 8시 30분미사 후
② 선교특위 - 10일(일) 10시미사 후
③ 성모회 - 13일(수) 전 11시
4. 차주 모임 : ① 자모회 - 19일(화) 전 11시
② 사회복지분과회의 - 20일(수) 전 10시
③ 꼬미시움 - 23일(토) 후 3시
5. 남성 꾸르실로 교육 : 14일(목)~17일(일), 천호 피정의 집
송돈(예우세비오), 한병의(마리노)
※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6. 금주 성서 통독 안내 : 신약복음 - 사도행전
7. 다음주 미사 안내 및 차(茶)봉사 : 효자2단지 구역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 녀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1. 모임 : 제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영세식 : 15일 9시 30분
3.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 전 6시와 10시
※ 저녁미사는 없습니다.
4. 금주 전례 : 해설 - 김미숙, 독서 - ① 이강운 ② 국혜원
5. 차주 전례 : 해설 - 정희수, 독서 - ① 이종근 ② 강정자
6. 청소년 봉사 : 4구역 전례

호지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보좌신부 226-0443 수 녀 원 223-0715 보좌신부 김 규 완
F A X 226-1044 사목회장 김 규 완

◎ 성전 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

소계 - 4,910단, 누계 - 772,945단

◎ 축! 영세받은 형제 자매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금주 모임 : ① 한나회 - 공식미사 후
② 반석회 - 13일(수) 후 7시
2. 애령회 가입과 회비 접수합니다.
3. 축! 레지오 마리아에 기사교육 수강 : 이기호(도미니코) 형제
4.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 전 6시, 10시 30분, 후 7시 30분
5.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중에 실시
6. 2차 신축헌금 신입액 : 누계 - 5억 5천7백446만원
7. 차주 모임 : 울트라야, 구역장, 제대회
8. 금주 전례 : 해설 - 김용만, 독서 - ① 김영호 ② 강남주
봉헌 안내 - 임낙규, 서쌍옥 부부
9. 차주 전례 : 해설 - 김낙만, 독서 - ① 이종표 ② 정명희
봉헌 안내 - 강신호, 임애자 부부